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톤 숄츠

인생에 단 한번 있는 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딱 한 번만 일어날 법한 사건이 있다. 그렇다고 태어나고 죽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보통 전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경험이 다르고 또 좋았는지 깨닫게 되곤 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나에게 있어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대단한 이벤트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매 순간 한국의 곳곳이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분위기로 넘쳐났다. 한국에서 또다시 그런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 두근거림의 경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아무튼 2002년의 여름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10년 전 일이 됐고, 그 이후 지금껏 있어왔던 국제행사들에서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순 없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한국 전역을 하나로 엮을 만한 행사로, 모두에게 정열을 발산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한국이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행사 주최국으로 당당히 등극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엉성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한국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주최 진영의 내부 갈등 등으로 기대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호응도는 놀라울 것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이 시점에서 여수세계박람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여수박람회가 잘못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된 뒤 7주가 지나면서 매번 접하는 언론 매체들의 주된 반응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사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많은 실수들은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는 언제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나의 박람회는 그야말로 인생에 단 한번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행사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훌륭한 행사다.

만약 지금 한국에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꼭 이 행사를 보길 바란다. 올바른 태도로 관람을 즐긴다면 엑스포를 경험한 그날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박람회야말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있기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 볼만한 멋진 국제행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저 가기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올바르게 박람회를 이해하고 관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람객들이 아쿠아리움이나 한국관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불만을 들어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박람회를 진정 이해하고 관람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만국박람회로, 그야말로 세계를 전시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를 배우며 잘 모르는 문화를 경험하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인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모든 기회의 장인 셈이다.

현대 한국사회는 너도나도 편리만을 찾으며 순간의 만족을 쫓아가는 욕구가 강하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스스로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F1 국제자동차경주장 내에서 포효하는 강력한 엔진 소리라던가, 엑스포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거대한 축구장과 같은 곳에서 가슴속부터 울려 나오는 뜨거운 함성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는 일들 말이다.

긴 줄을 서야한다거나 돈을 써야하는 등의 약간의 곤란함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들과 닮았다. 오히려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지 못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

위대한 철학자 페리스 뷜러(Ferris Buel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은 꽤 빠르게 움직인다. 만약 한동안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는 맹랑하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의 라이브 콘서트를 보기 위해 혼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했다. 며칠 간의 여행에서 콘서트장 앞 자리에 앉기 위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더운 태양 아래 긴긴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고, 호텔에서 잘 돈이 없어 길가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고생인가 묻는다면 서슴없이 그렇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그 경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놓칠 수 없는 내 인생의 단 한 번의 이벤트였다. 〈코리아컨설트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전남대 총장선거마저 부정 의혹이라니

광주지검이 3일 전남대 총장선거와 관련, 일부 부정이 개입됐다는 단서를 잡고 전남대 교수 연구실과 정보전산원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 대상에는 지난 5월23일 전남대 총장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된 박창수 의대 교수와 박 교수를 도운 측근 교수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총장선거를 위탁관리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이뤄진데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박 교수를 포함한 전체 후보자들과 선거운동 관련 교수들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쳐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총장 재선거 실시도 배제할 수 없어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총장선거는 과열로 인해 각종 로비가 잇따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무려 10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데다 선거운동 기간마저 수개월에 달해 과열양상을 부추겼다.

일부 후보자나 지지자들은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교수들에게 식사와 골프 등을 접대했고,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 전후에는 몇몇 후보자들이 갈비세트나 과일 등을 선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선거 부정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불법선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성인 집단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교수사회에서 '매관매직'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는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관철하려는데 빌미만 주는 것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밝혀내야 하며, 대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해당 교수들도 우려되는 파장을 고려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유명무실 '실버존' 노인 보호 실효성 높여야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들을 위해 추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없는데다, 일선 지자체가 예산난을 이유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등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 노인복지시설 인근 도로에 차량 통행이나 주·정차를 제한, 노인들의 안전 보행을 위해 실버존을 운영토록 했다. 스쿨존과 유사한 실버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과태료와 함께 가중처벌되는 스쿨존과 달리 실버존은 일반도로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설물 설치·관리를 등한히 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스쿨존이 500개소에 이른 반면 실버존은 32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안전표지판 이외에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이 모두 설치된 곳은 전무하다.

광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체 인구의 7.1%에 불과했으나 2010년 8.8%로 늘었고 2011년엔 9.3%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들은 실버존 지정·관리에 소홀하기 그지 없다. 지난해 10월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광주 보훈병원 앞 도로는 실버존으로 지정됐으나 가상방지턱만 표시돼 있어 차량들의 빠른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동구 서석경로당 일대 도로도 실버존 지정만 돼 있을 뿐 무분별한 주차 등 관리는 엉망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들은 고령사회 급진전 추세를 감안, 실버존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신장 병들게 한다

강동구

생활 수준의 향상과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만성 질환의 발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2009년) 기준으로 약 620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고혈압은 아무 증상 없이 찾아와 뇌졸중, 심장병, 신장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고혈압은 잘못된 식습관, 가족력,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고루 받아 발생하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인이 되는 질병이 없이 나타나는 '본태성 고혈압'이고, 다른 하나는 신장 질환이나 혈관 이상, 내분비 질환 등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고혈압'이다. 전체 고혈압 환자 중 이차성 고혈압 발생률은 5% 이하로 추정되며 이들 중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장 질환에 의한 고혈압이다. 반대로 본태성 고혈압도 계속되면, 신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필자에게 개인의원에서 고혈압을 진단받고 꾸준히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던 한 40대 여성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이 환자는 "생활 패턴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최근 들어 몸이 피곤하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됐다.

이 환자와 같이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점차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곤함, 가려움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이 악화된다.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저하되면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고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

신장은 우리 몸의 25%에 달하는 피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고혈압은 그 자체로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급·만성 신장질환에 의해 고혈압이 유발되기도 한다.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투석을 시작한 말기 신부전 환자 중 약 16% 정도가 고혈압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혈압이 신장질환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해서 신장이 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는 신장 기능 보호 효과가 입증된 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같은 고혈압 치료제는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춘다. 또 제2형 당뇨병과 신질환을 가진 고혈압 환자들의 말기 신질환 발생률,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임상 결과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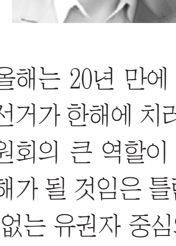
모든 질환이 그렇듯,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정상회복이 가능하나 만성화가 되면 제 기능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신장 합병증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장 합병증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간편하게 측정 가능하다. 또한 고혈압 환자 중 만성 신장병을 동반한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식이요법과 약물요법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꾸준한 조절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흡연자라면 금연을 하는 게 권장되며, 꾸준한 운동과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과체중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체중 감량을 통해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광주기독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기 고

18대 대선때 선상(船上)투표 꼭 하세요



정창현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해에 치러지는 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큰 역할이 기대된 만큼 보람있는 한해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소외계층이 없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의지는 어느 선거와 사뭇 다르다.

이러한 기대와 의지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시 '재외선거'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상투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선상부재자투표는 1998년에 처음 제안된 뒤 2005년부터 수차례 국회 본회에 상정됐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에 비로서 헌법재판소도 외항선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결정으로 인하여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원 등에 대한 선거권행사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과 근로, 교육과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해 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당일 선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참여에 소외되어왔다.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도맡았던 선원들이 단순히 여·야정쟁의 대상, 힘겨루기의 희생물이 된 것이라는 정치적 평가와 지적을 뒤로 하고 다행히 행정의 최고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의 본격적인 도입은 선거사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본질적 의미에서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이 제도 근원은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선상투표는 보통선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국정선거에 있어 보통선거는 모든 국민은 출생·신분·직업 등에 상관없이 선거권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 헌법의 4대 원칙 중 보통선거의 원칙은 어느 선거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현실은 보통선거의 보장을 위하여 비밀투표를 다소 경시할 수 있다는 명분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는 선거환경과 높은 국민의식에 따라 '비밀투표'보다 '보통선거원칙' 보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선거현실과 국민의식 등으로 '비밀투표 보장'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정치선진국의 보통선거는 오랜 역사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어진 투쟁의 결과물인데 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해방과 함께 부산물로 얻어진 숙성의 시간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이해의 답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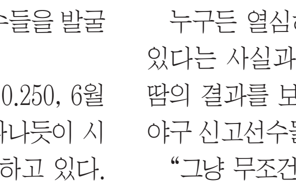
결국 보통선거의 원칙에 충실한 투표방식이면서 동시에 비밀과 공정이 담보되는 투표방식 즉, 선상에서의 실드팩스(Shield facsimile, 일명 방패 fax) 방식을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선상투표 부재자 신고', '투표용지 발송' 그리고 '투표지 회송' 등 절차사무의 전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위원회 원칙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 여·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대선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4·23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에 이어 6·22 선거일 전 180일로서 본격적인 대선의 막이 올랐다. 최근의 통계에 따른 제18대 대선에 예상되는 선상투표 유권자는 외항화물선 7783명, 외국선박이 3499명, 나머지 2261명으로 총 1만3543명으로서 그 수에 있어서는 미미하나 선상투표 실시의 의미는 헌법적 의미 그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권자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보통선거의 원칙이 보장된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보통선거 보장은 법과제도로서 풀 수 있다.

선상투표 도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이제 모든 유권자는 "민주주의는 남(他人)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정치"라는 것임을 명심하고 진정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봄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광주시 선관위 관리계장〉

無 等 鼓

신고선수



군산상고-고려대를 졸업한 KIA 이준호(25·우익수)는 2010년 신고선수로 KIA에 입단하면서 힘겹게 프로에 입문했다. 2011년 정식선수로 등록돼 1군에서 4경기를 뛰었지만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올해는 오른 손목 부상으로 스프링캠프도 가지 못했다. 그런 그가 2012 프로야구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KIA의 주전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고선수'란 일명 연습생으로 KBO에 정식으로 등록된 팀당 63명에 포함되지 않고 선수로 신고만 되어 있는 선수들을 말한다. '연습생 신화'의 주인공 장종훈 이후 많은 신고선수 출신 스타플레이어가 탄생해 정식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이준호는 4월 0.167, 5월 0.250, 6월 0.276 등 월간 타율에서 나타나듯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진화하고 있다. 우익수로 결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여러 차례 KIA를 살리기도 했다. 말 그대로 소금과 같은 활약이다.

KIA에는 대졸 신고선수 포수 한성구(24)도 있다. 선동렬 감독이 그를 인정한 것은 실력보다 야구에 대한 자세였다.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새벽운동을 갔다가 한성구와 마주쳤던 선 감독은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한성구는 새벽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한성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려고 한다는 게 선 감독의 의중이다.

이들 외에도 올 시즌 프로야구에는 '신고선수 돌풍'이 거세다. 2000년대 말 '화수분 야구'로 유명했던 두산에서는 김현수와 이종욱, 손시헌이 신고선수를 거쳐 스타가 됐다.

누구든 열심히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목표를 향한 절박함과 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2012 프로야구 신고선수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할 뿐입니다"라는 KIA 이준호나 한성구가 올 시즌 새로운 신고선수 신화를 창조하길 기대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치매 노인 실종 막게 인식표 보급하고 관리해야

요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암이나 당뇨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노인의 치매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 노인 증가와 그에 따른 노인 가출까지 심각한 가정 붕괴를 부르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치매에 따른 노인 실종은 치매라는 특성상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이탈, 사고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유가족들은 한동안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자식들의 부주의로 평생 자식을 위해 일을 하신 부모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필자 주위에서도 치매에 걸린 이웃집 어르신이 집을 나간 뒤 실종상태에서 찾지 못하고, 가출 10일 만에 사망한 상태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 후 이 가족들은 아버지를 황망하게 잃었다는 충격 때문에 가족 모두가 슬퍼하다가 결국에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한 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맞춰 실종노인 방지를 위한 적절한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증상이 심한 노인을 발견하고도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가족의 품으로 쉽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보호시설로 인계하거나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잖다.

실종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전단지를 배포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에게 보내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기울인다면 노인 실종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실종노인의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인식표를 보급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의 치매검사 결과 증상이 일정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인식표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치매노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49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경부	2200-612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디자인	2200-536
사회부	2200-616	기획사업국	2200-555
〈대표 FAX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0195〉
여론매체부	2200-6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사진부	2200-693	서울지사	02-773-9331
조사부	2200-571	〈F A 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